

나라는 우거진 숲의 나침반

-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를 읽고 -

일반부 최우수 김 소 영

나는 항상 완전히 다른 길을 향해 가고 있다. 나는 길을 날마다 잃고 헤매고 있다고 느꼈다.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여 낯선 새로운 곳, 이천에 이사 온것이 불과 두 달이 채 되지 않는다. 결혼과 함께 낯선 곳, 낯선 역할이 주어졌다. 여행으로도 온 적 없었던 이천이라는 곳과 새로운 가정 그리고 아내라는 역할.

불안은 생각을 낳는다. 낯선 곳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나의 매일은 완전히 다른 곳에서 길을 잃은 기분으로 헤매는 기분이었다. 그래서 나는 내게 안심할 수 있는 곳을 찾았다. 생각이 많아 질문이 많았던 내게 항상 열려있던 나의 궁전, 도서관이었다.

앤드루 카네기는 ‘도서관은 대중의 궁전’ 이라고 했다. 나는 그 이야기 공감한다. 도서관은 질문 많던 어린이였던 나에게 항상 답을 주던 나의 궁전이였다. 어떤 문제를 가져가도 해결할 수 있는 책과 만나게 해줬다. 때로는 나를 미국인으로, 세계2차대전 속 소녀로, 때로는 외로운 소년으로 만들어줬다. 그들의 삶을 경험하며 답을 경험하게 해주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도서관을 찾았다.

‘이 낯선 불안과 생각에서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나의 질문은 이것이었다. 낯선 이 곳에서 내가 제일 먼저 한 것은 도서관 회원등록과 그리고 이 책을 만난 일이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부정에서 가정으로 이어지는 제목으로 나를 멈추게 한 이 책은 놀랍게도 몇 시간 만에 나를 빠져들게 하기 충분했다. 저자인 나티코 역시 자신이라는 숲에서 헤매며 길을 찾으려 애쓴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인생의 정도를 걷는 사람이었다. 적당한 직업, 학력, 가정을 가졌던 그는 그러나 우거진 자신의 숲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그저 앞으로 걷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디 서 있는지, 어떤 풍경을 보고 싶은지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인생의 변곡점을 맞은 건 내면의 숲을 발견하면서였다. 불안과 생각이 뒤섞여 있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우거진 나라의 숲. 그 숲에서 저자는 내면 본연의 목소리를 처음으로 발견한다. 이른바 ‘알아차림’ 의 첫 발견이었다. 어디로 가고 싶어? 무엇을 보고 싶어? 그게 어떤 결과를 얻게 될지 보다 그저 내가 갈 방향을 발견하는 것에 집중을 시작했다.

그리고 정말 예상치 못했던 여행을 시작한다. 한번도 안가본 태국에서 불교의 가르침을 접하고, 내면의 숲을 가로막았던 무수한 생각의 나뭇가지에 대한 답을 찾아나간다. 그리고 갑자기 승려가 된다.

만약에 승려가 된 깨달음으로 이야기가 끝났다면 내게 종교 서적이자 한 사람의 인

생에 대한 전기가 되었을 것이다. 한 외국인이 승려가 된 한 사람의 종교 귀화기. 하지만 완전히 다른 길로 향하는 그의 여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자신의 깨달음과 명상에 대한, ‘내면 알아차림’을 강연자로 변신하여 다양한 사람들에게 전파하던 그는 루게릭병을 갑작스럽게 진단받는다. 예상치 않은 길. 저자가 자신의 숲에서 루게릭병을 마주할 거라 예상했을까? 아니다.

그 다음 놀란 것은 저자의 태도다. 저자는 그저 루게릭병을, 낯선 길을 걷다 갑자기 만난 불청객같은 돌부리 같은 것을 그저 받아들였다. 그리고 계속 자신의 숲을 거닐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놀라웠다.

우리가 만약, 아니 내가 한 치 보이지 않는 숲에서 갑자기 나를 상처 입힐 수도 있는 돌부리를 만난다면 어떨까? 불안하고 두렵고 절망하겠지. 이 길 역시 틀렸구나. 부질없구나. 그렇다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다시 숲을 헤매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저자는 자신의 내면에서 그 답을 찾는다. 명상하고 나에게서 답을 찾는다. ‘나에게 루게릭병이 왔어. 어떻게 하고 싶어?’

우거진 숲에서 돌부리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 돌부리를 피해 돌아갈 수 있다. 뺨아낼 수도 있다. 어떤 방법도 괜찮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하고 싶은가? 나의 내면은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저자에게 중요한 것이었다.

나라는 숲은 때때로 방향을 잃는다. 완전히 다른 길로 간다고 느낀다. 예상치 못한 낯선 길에 던져지기도 한다. 안다고 생각한 길에서도 길을 잃고 헤맨다. 그럴 때 감당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나를 제 자리에 주저앉힌다.

나는 그런 상황이다. 낯선 새로운 이천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아 이 자리에서 있다. 우거진 내 숲은 낯선 길 위에 있다. 수많은 정리 할 수 없는 불안의 질문들은 움직이기 두려울 정도로 뒤덮고 있다.

저자는 숲을 안내하는 나침판은 나에게 있다고 말한다. 나침판은 대단한 경지에 오른 것 같은 불교의 깨달음, 놀라운 최초 외국인 승려로서의 경험, 마지막까지 함께 한 루게릭병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면의 ‘알아차림’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새로운 길에 매일 놓인다. 늘 다른 길로 향한다. 낯선 매일은 불안과 생각의 숲에서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앞으로만 가게 한다. 나는 그 길 위에 있다.

다행이었다. 이 책이 말하는 것이 저자의 승려로서의 삶과 불교의 거대한 깨달음, 고행의 리포트였다면 ‘나는 그 거대한 숙제들을 어떻게 하지?’ 하며 또 다른 불안과 질문에 휩싸였을 테지만 나는 책에서 답을 얻었다.

나라는 숲에서 나침판은 내면에 있다. 우거진 생각의 숲에서 내가 어디로 갈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내 모든 생각이 다 옳지 않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면의 목소리를 고요히 들으면 방향을 알 수 있다. 우거진 내 불안의 숲에서 어디가 길인지는 나의 내면의 목소리가 알려줄 것이다. 그건 나의 거대한 종교적 수행으로도, 그 어떤 노력의 무엇인가가 아닌 내가 나면서부터 가진 것이었다.

낯선 이곳에서 나는 또 질문의 답을 나의 궁전 도서관에서 발견했다. 그리고 이제는 좀 더 분명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우거진 숲에서 어떤

돌부리와 풍경을 마주한다 해도 나의 나침반이 내 손안에 있기에 불안하지 않다.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바깥 세상으로 나가기 위한 고요한 시간

-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를 읽고-

일반부 우수 김 동 선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여기는 어디지? 미술관을 스스로 찾아가 본 경험이 없는 나에게 제목부터 생소했다. 그러나 미술관 경비원 아래의 부제가 눈에 확 띄었다. 가장 경이로운 세계 속으로 숨어버린 한 남자의 이야기? 이 남자는 어떤 사연이 있길래 숨고 싶었을까? 뒤표지에 소개된, 형의 장례식 이후 미술관 경비원으로 한동안 고요하게 서 있고 싶었다는 글은 공감까지 불러왔다. 지난 4월에 사랑하는 시누이를 하늘나라로 보냈기에 한동안 고요하게, 또한 어딘가에 숨고 싶었다는 마음이 깊이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저자의 형은 암에 걸려 불과 27살의 나이로 죽게 되었다. 사랑하는 형을 떠나보내고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자, 주인공은 권위 있는 잡지사의 직업까지 내려놓고 미술관의 경비원으로 지원한다. 형의 병간호를 하던 동생이 허탈감을 느끼고 몸과 마음을 추슬러야 할 시간이 필요했으리라 생각한다. 그런데 왜 미술관으로 갔을까? 그것도 경비원으로? 저자는 내가 아는 공간 중 가장 아름다운 장소를 이 미술관으로 택했으며, 떠올릴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일을 하는 일자리로 미술관 경비원을 떠올렸다고 했다. 경비로서 특별한 자격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고, 거대한 규모의 미술관에서 오랜 시간부터 지금까지 보존해 온 인류의 위대한 걸작들을 보며 내면의 대화를 하고 싶었던 것 같다.

미술관에서는 사람과 사람이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멈춰 서서 벽에 걸린 그림에 집중한다. 경비원이 된 브링리는 다양한 관람객을 보면서 낯선 사람들이지만 아름답게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들도 나처럼 힘들고 풍요롭고 짧은 삶에 몰두해 있다는 사실을 찾게 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보는 대부분의 것에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확실한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낯선 이들까지 애정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쫓기도록 바쁘게 살 때는 남들을 쳐다볼 여유도 없는데, 낯선 사람들의 속사정까지 헤아려 보려고 하는 노력 아니 내가 보는 것만으로 저들의 삶을 다 이해할 수 없겠지, 이들도 나처럼 때로는 승리하고 고통받으며 살고 있겠지 하는 겸허함을 보여 주었다.

또한 브링리는 모든 소통에는 자신이 세상의 흐름에 다시 발맞출 수 있도록 돕는 격려의 리듬이 깃들여 있다고 했다. 동료 경비원이나 관람객들과 소통하게 되면서 스스로가 영원히 숨을 죽이고 외롭게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했다. 처음 경비원으로 지원했을 때는 고요하게 지내고 싶어서였지만 그것만이 자신을 회복하는 길이 아님을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게 되면서 발견한 것 같다. 누구에게나

숨겨둔 자아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내 안의 해결되지 않았던 복잡한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이제는 밖으로 꺼낼 수 있게 되어서일까? 말하면 아프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비밀스러운 자아를 들으며 좁았던 내 시야가 넓어져서 그럴까?

나는 저자가 형을 잃은 상실감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에 관심을 두면서 읽기 시작했는데, 저자가 미술관의 작품을 감상하며 사유한 글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 그동안 나는 미술과 그리 친하지 않았다. 어쩌면 중.고등학교 시절 미술 시간에 늘 긴장했던 기억이 있어 그런지 성인이 되어서도 조금은 거리감이 있었다. 반면 음악은 좋아해서 음악회를 찾아가 감상하곤 한다. 그러던 중 ‘그림 읽어주는 베토벤’ 영화와 클래식 만남 공연을 몇 번 관람하면서 미술과 음악을 접목하여 해설을 들으니 영화와 미술 사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큐레이터의 쉽고 재미난 해설을 들었던 마네와 모네, 다빈치, 미켈란젤로, 이중섭의 삶과 작품을 보면서 그동안 멀게만 느껴졌던 미술이 성큼 내게 다가왔었다. 그 후로는 어린이들이 읽는 미술 관련 도서를 찾아 읽으며 그림을 보는 재미를 알게 되었다. 해설이 들어간 미술 작품 관람은 참 흥미롭다고 느꼈지만, 이 책을 읽으며 그동안 나 홀로 미술 작품과 씨름해 본 적은 없다는 걸 알았다. 예술이 무엇을 드러내고 싶었는지를 고민해 볼 용기를 감히 내보지 못했던 것 같다. 저자의 표현처럼 예술을 경험하기 위해 사고하는 두뇌를 사용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다. 정확히 말하자면 예술적 사유 두뇌를 사용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저자는 나의 다양한 측면을 모두 동원해서 그 예술이 던지는 질문에 부딪혀 보라고 도전을 주었다.

지난 8월, 나는 동유럽으로 여행을 다녀왔다. 부다페스트 부다 왕궁, 비엔나 쉐부른 궁전, 프라하 성, 또 각 나라의 성당에서 고딕, 르네상스, 로코코 양식의 건물을 비교하며 볼 수 있었다. 현대 시각으로도 화려한 이 건물을 당시 건축가들은 얼마나 오랜 시간 정성을 들였을까 했다.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예배당의 천장화를 그릴 때의 모습을 저자는 상상했다. 조수들이 회반죽을 바르고 그것이 마르기 전에 그날 완성해야 할 부분을 해야 했고, 비계 위에서 570일을 보냈다니! 예술이라기보다 육체노동에 가깝다. 반복적인 몸을 쓰는 노동, 인내심을 가지고 한 단계씩 진척시키는 겸허함을 표현하는 저자의 사유에 감탄이 나왔다. 인체를 해부한 것 같은 남성의 소묘 작품 또한 천재라 불리는 미켈란젤로의 영감만을 높일 것이 아니라 종이 위의 무엇 하나 그냥 그린 것이 없는, 무한한 근면성의 산물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고 있을 시누이는 켈트를 좋아했다. 내가 볼 때는 전문가 수준인데, 공방 하나 차려서 그 재능을 흘려보냈어야 했는데……. 항암 치료 하면서도 바느질하면서 통증을 이겨냈다. 조각작가 천을 잇고 자신만의 패턴을 만들어 냈다. 벚꽃이 눈처럼 흐드러지게 떨어지던 날, 장례를 마치고 집 정리하러 갔는데 작은 천 하나, 다양한 실과 솜, 밑그림을 그린 종이 등 미켈란젤로의 습작처럼 시누이 작가의 흔적이 아름답기만 했다. 미완성한 작품들이 꽤 여럿 있어서 완성해 줄 전문가에게 맡겼더니 이불, 가방, 벽걸이로 완성되어 추석 명절에 온

식구들에게 돌아왔다. 시누이만의 감성이 그대로 녹아있는 작품을 보고 모두 멍멍해졌다.

엄마를 보내고 세 딸들은 가만히 멈추어 있을 수 없었다. 각자에게 주어진 학교 생활에 돌아가야 했고,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며 집안일을 분담해야 했다. 엄마가 딸들의 결혼식에 주고 싶었던 곱디고운 이불을 미리 받아 이불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릴 수 있을지언정 말이다. 딸을 먼저 보낸 부모도, 형제와 자매도 그리움에 사무치면서 보내도록 삶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시누이도 우리가 오랜 시간 멈추어 슬픔에 빠져있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브링리는 미술관 경비원 10년 생활을 끝낸 후 뉴욕 도보 여행 안내원으로 직업을 바꾼다. 경비원이 한 곳에서 일하는 정적인 일이라면, 여행 안내원은 동적인 일이라 느껴진다. 메트로에 오는 관람객들에게 해줄 조언대로 그는 앞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연료가 될 작품을 품고 바깥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10년, 그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 시간 동안 고요하게 예술과 마주하며 예술가의 삶을 사유했다. 낯선 관람객, 동료 직원들과 소통하며 나와 타인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곳에서 얻은 인생과 예술에 대한 깊은 통찰로 도보 여행을 떠나는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해줄 수 있겠지?

나는 10년 정도의 시간을 고요히 있을 상황은 되지 못했지만, 10일의 동유럽 여행을 통해 일상의 삶을 벗어나 인생을 생각할 수 있었다. 주어진 기간 동안 여러 곳을 방문하느라 한곳에 오래 머물러 깊은 감상은 할 수 없었지만, 이제껏 살아온 터전의 문화와 다른 곳에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 감사했다. 번창했던 합스부르크 왕가의 미술 작품을 보며 그들의 화려한 삶이 멋있다고만 느끼지 않고 이 왕가가 유지되기 까지 서민들이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를 생각할 수 있었다. 이면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껏 걸어온 내 삶의 기간이 짧지만은 않았나 보다. 저마다의 인생길이 나만큼이나 실존적이고 승리하고 또 고통받았음을 알기에 타인을 공감할 수 있는 것 같다. 이런 삶의 관조로 나도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를 줄 수 있기를 바란다.

미래는 이미 시작되었다

- 'AI 사피엔스' 를 읽고 -

일반부 장려상 전효원

초등학교 시절, 과학의 날 상상 그리기 대회에서 “로봇이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면 얼마나 편리할까?” 라는 상상을 했던 기억이 난다. 길을 걷다가 아름다운 꽃을 보면 책을 찾지 않아도 누군가가 그 이름을 알려주고, 외국어를 몰라도 누군가가 통역을 해주는 상황을 꿈꾸던 그 시절에는 이런 상상이 현실이 될 줄 몰랐다. 당시 단순한 공상에 불과했던 '로봇'이나 '누군가'라는 개념이, 지금은 'AI(인공지능)'라는 구체적인 기술로 실현되었다. 내가 처음으로 AI를 알게 된 계기는 알파고와 이세돌 프로의 바둑경기이다. 경기전까지는 당연히 인간의 유연함과 경험을 이길 수 없다는 내 생각과는 다르게 이세돌 9단이 5번의 대국 중 단 1번의 불계승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AI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지금은 많은 산업에 침투해 자연스럽게 삶 속에 녹아있다. VR, AR 기술이 발달하면서 디지털 세상을 현실 세상과 같이 어느 정도 인정하는 시대가 왔다. 특히, 팬데믹 이후에는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며, 인공지능은 이제 현대 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로 자리 잡았다. 메타버스속 세상에서 땅을 사고팔거나 부를 축적하는 것을 실제 재화로 거래가 이루어질 만큼 점차 메타버스의 세계도 인정받는 추세이다. 또한, 스마트폰, TV 등 우리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기기에는 인공지능이 포함되어 있으며, 단순히 “이 꽃의 이름을 찾아줘”라는 명령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가 접하는 다양한 콘텐츠에도 인공지능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바로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된 이야기였다. 건설, 유통, 제조업 같은 전문적인 산업 분야보다는 내가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런지 훨씬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웠다. 예를 들어, 바쁜 평일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스마트폰으로 뉴스 기사를 읽고, 틈틈이 SNS를 살펴보며, 학교 과제는 생성형 AI인 챗GPT를 이용해 간단히 정리하는 식이다. 한가한 주말에는 스마트폰으로 만화를 보거나, TV로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보고, 유튜브를 시청하는 등 하루가 다 지나간 경험이 있다. 이처럼 수많은 디지털 콘텐츠가 넘쳐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탈중앙화' 때문이다. 과거와 달리 자본이 아닌, 소비자의 선택이 권력이 되는 시대가 왔다. 그리고 '탈중앙화'를 바탕으로 형성된 플랫폼이 디지털 콘텐츠에 날개를 달았다. 예를 들어 뉴스를 보기 위해 특정 신문사의 신문을 구독에서 보던 옛날과 달리, 포털사이트에 접속만 해도 여러 뉴스 사의 헤드라인 뿐만 아니라 속보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 디지털 시대에서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플랫폼에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많은 금액의 투자를 통해 플랫폼의 규모를 키우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소비자들이 다양한 플랫폼 중 특정 플랫

품을 선택하고 꾸준히 이용하게 만들려면 지속적인 혁신과 차별화된 이유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쉽게 떠나버릴 것이다.

디지털 콘텐츠가 일상생활에서 접근하기 쉬워지면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메타버스는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예시는 바로 ‘오징어 게임’이다. 이 넷플릭스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각종 SNS와 다양한 플랫폼에서 오징어 게임과 관련된 패러디와 유행어들이 만들어졌다. 가상 콘텐츠가 현실 세계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플랫폼을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늘날의 디지털 플랫폼은 전 세계를 연결한다. 이런 플랫폼에 우연히 올린 영상 하나가 AI의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널리 퍼지게 된다면, 우리는 많은 팔로워를 얻을 수 있고, 그로 인해 광고 수익까지 얻을 수 있다. AI가 주도하는 추천 시스템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공간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확대된다.

이 책을 읽게 된 이유는 사실 굉장히 단순했다. 나는 빅데이터 관련 자격증 시험을 준비 중이었고, 기술적인 내용을 다룰 것으로 생각하며 책을 펼쳤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이 책은 인공지능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었다. 기술적인 부분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되어 있었으며, 내가 준비 중이던 자격증의 중요성 또한 다시금 실감할 수 있었다. 흔히들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지만, 그 의미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우리 사회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이 책은 전공과 무관하게 한 번쯤은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꼈다.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일상에 녹아들어 있는지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책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우리가 디지털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디지털 콘텐츠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 사회와 산업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나 역시 팬데믹 이전과 이후의 생활을 돌이켜 보면 그 차이를 뚜렷하게 느낄 수 있었다. 책을 읽으며 머릿속에 깊이 남았던 주장은, AI가 가져온 변화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변화의 흐름을 거슬러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제는 AI와 관련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져, 이러한 변화를 인식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누가 일부러 편리한 생활을 포기하고 불편을 감수하려 하겠는가? 이는 결국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로 이어진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면, 우리는 변화에 대비하고 적응해야 하며, 그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할 것이다.

물론 인공지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생겨나는

윤리적 문제, 개인정보 보호 문제, 그리고 일자리 감소와 같은 다양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책은 이러한 문제들이 AI의 발전을 막을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이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며, 우리는 AI 기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로 인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 책은 인공지능이 우리 삶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폭넓게 다루고 있다. 기술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AI가 인간 사회와 산업구조에 미치는 변화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시한다. 인공지능이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이 기술이 이미 우리의 일상에 깊이 뿌리내렸다는 점을 깨닫게 해준 책이었다. 또한, 산업군에서 AI(Artificial Intelligence)의 독보적인 발전에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 AI와 접목시킬 수 있는 모든 산업군의 기술 최적화, 개발 속도 향상, 약인공지능에서 강인공지능으로 가기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이전까지 신약개발에 있어 단순히 특정 성분의 비율을 바꿔 가는 반복실험을 직접 했다면, 현재 엔비디아에서 제공하고 있는 BioNeMO 모델을 사용해서 시간과 금액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다른 예시로 웹페이지 제작을 위한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지금은 웹디자인의 기본적인 틀을 직접 타이핑하지 않고 일부 AI 모델을 이용해서 기본적인 틀을 제공받은 뒤 디자인을 시작한다. 전체 제작 기간과 오류를 수정하는 기간을 개발비용으로 계산하면 제작비용 감소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나는 단순히 AI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꼭 배워야 할 ‘과목’ 정도로 생각했다면, 이 책에서는 얼마큼 기술이 가까이 있는지, 어떤 시대를 만들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책이다.